



#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비은행 기업의 은행업 겸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의 2016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은 모회사인 보험회사 고객의 연금 계좌 운용, 신탁·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은행 자회사의 예금·대출업무를 축소하고 신탁업 중심의 저축은행(Trust Only Thrift)으로 전환함. 미국의 사례는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기업의 사업모형에 적합한 은행업 겸업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소유한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 프린시펄, 뮤추얼 오마하, 트리벤트, 아메리프라이즈와 손해보험회사인 AIG,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트팜이 자회사로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음
  - 2012년까지 12개 보험회사가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였으나 올스테이트, 링컨 파이낸셜, 메트라이프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은행업에서 철수함
- 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AIG, 푸르덴셜은 소유 은행들의 사업구조를 신탁업 중심의 저축은행(Trust Only Thrift)으로 전환함
  - 푸르덴셜과 AIG 소유 은행의 자산은 2010년 20.3억 달러와 10.6억 달러였으나 2016년 2천만 달러와 3,386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
- 본고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트팜,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과 프린시펄이 소유한 은행들의 경영성과를 분석

〈표 1〉 2016년 말 미국 주요 보험회사 소유 은행 자회사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모회사 총자산	은행 자회사 자산	구분	모회사 총자산	은행 자회사 자산
푸르덴셜	757.3	0.020	AIG	46.3	0.034
프린시펄	218.7	2.380	네이션와이드	197.1	6.870
뮤추얼 오마하	35.6	7.603	스테이트팜	176.0	18.251
트리넨트	80.1	0.010	-	-	-
아메리프라이즈	145.3	0.024	저축은행 평균	-	1.365

자료: FDIC

### ■ 대출비중이 적은 프린시펄과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는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경영성과보다 우수함

- 2016년 프린시펄과 푸르덴셜의 은행 자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8.1%, 20.6%로 미국 저축은행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11.45%를 크게 상회함
- 프린시펄의 은행 자회사 자산이익률(ROA)은 1.4%,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자산이익률은 17.8%로 업계 평균 1.26%를 상회
  -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ROA가 17.8%인 것은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2010년의 경우 자산규모는 20.3억 달러, 자산이익률은 1.48%임
  - 2016년 대출자산 비중이 29.7%인 프린시펄의 경우 유가증권 운용수익을 통해 1.4%의 자산이익률을 기록함
- 반면 순이자마진은 모두 업계 평균인 3.68%를 하회함
  - 프린시펄의 순이자마진은 2.4%, 푸르덴셜의 순이자마진은 1.8%에 불과한데 이는 저금리로 유가증권운용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 주요 보험회사 소유 은행의 2016년 경영성과

(단위: %)

구분	ROE	ROA	순이자마진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자산 비중	총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비중
프린시펄	18.1	1.4	2.4	29.7	68.0	12.9
푸르덴셜	20.6	17.8	1.8	0.0	91.3	95.6
네이션와이드	2.3	0.2	2.0	68.7	26.5	60.2
스테이트팜	2.1	0.2	2.7	63.5	32.6	14.5
저축은행 평균	11.45	1.26	3.68	60.9	11.45	32.3

자료: FDIC

■ 반면 대출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들의 경영성과는 평균 저축은행 경영성과에 미치지 못함

-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스테이트팜 은행 자회사들의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은 2.3%와 2.1%로 저축은행 평균 11.45%를 크게 하회함
  - 순이자마진도 각각 2.0%, 2.7%로 평균인 3.68%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스테이트팜의 은행 자회사들의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은 각각 68.7%, 63.5%로 평균 비중 60.9%보다 높은 수준임
  - 순이자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금리의 영향뿐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저축은행 평균 32.3%를 상회함

-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2016년 은행 자회사 비이자수익은 각각 665만 달러와 2억 8,930만 달러로 신탁업 관련 신탁서비스(Fiduciary Service)가 대부분을 차지함
  - 신탁서비스는 모회사의 연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특별계정 자산비중은 37.7%, 43.9%이며 수수료 수익 비중은 각각 17.1%, 11.3%임
  - 추가적 비이자수익은 투자자문 수수료, 증권유동화 관련 수익, 보험상품 판매수익 등임
- 반면 프린시펄의 특별계정 자산비중은 62.6%, 수수료 수익 비중은 30.5%이나 연금계좌 관리서비스와 투자자문 서비스 중심으로 비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은행의 연금계좌 자산은 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운용됨

■ 또한 스테이트팜 소유 은행자회사의 경우 계좌관리서비스, 은행에서 판매하는 뮤추얼펀드 등 수익증권 판매, 투자자문 서비스 등에서 비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 네이션와이드와 같이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지만 네이션와이드에 비해 연금사업 비중이 적고 신탁 업무관련 신탁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2016년 미국 보험회사 소유 은행 자회사의 비이자수익 구성

(단위: 억 달러)

모회사	비이자수익	비이자수익 항목				총수익	모회사 특별계정 자산 비중
		신탁 관련	계좌 서비스	트레이딩 서비스	추가적 비이자수익		
프린시פל	0.092	0.0	0.088	0.0	0.0036	0.713	62.6%
푸르덴셜	0.067	0.067	0.0	0.0	0.0	0.070	37.7%
네이션와이드	2.893	2.691	0.007	0.0	0.196	4.803	43.9%
스테이트팜	1.089	0.0	0.025	0.0	1.064	7.485	2.2%
저축은행 평균	0.248	0.023	0.012	0.0	0.212	0.768	-

자료: FDIC

■ 미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은 보험회사 연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신탁, 투자자문 등 자산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는 경영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은행을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 내부에서 투자자문 등 자산관리 사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들보다 경영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AIG, 푸르덴셜이 은행 자회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은행을 소유한 보험회사들 가운데 모회사 연금고객에게 수탁관리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예금·대출업무 비중이 큰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보다 우수함

■ 미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사례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은행업 겸업 전략이 예금-대출업무보다는 보험회사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미국 대형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Tier 1 위험자기자본비율(Risk Based Capital Ratio)은 규제수준인 6%를 상회함<sup>1)</sup>
  - 프린시פל 11.8%, 푸르덴셜 273.3%, 네이션와이드 11.4%, 스테이트팜 15.5%이며 저축은행 평균은 16.6%
-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비은행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른 은행업 인·허가가 신축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kiri**

1) Tier 1 Risk Based Capital Ratio는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정의되는데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측정함